

세종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문항 1	3
문항 2	6
2025학년도 인문계열	8
문항 1	8
문항 2	11
2024학년도 인문계열	13
문항 1	13
문항 2	16

2026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가]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 기인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에서조차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에 비례하여 대부금의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밖에 없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여덟 시간 고용해 놓고 한 시간을 놀린다면, 한 시간 치의 임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돈’이라는 말은 ‘귀중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갖게 되었다.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휴대 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는 3~4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사물의 생존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 우리는 대개 그 속도를 따라가며 산다.

[나]

오래된 것이 새롭다. 소위 모던(근대)의 시각에선 낡은 감성이다. 100여 년 전 개항과 더불어 한반도에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됐을 때 모던은 새것을 뜻했다. …… 1920년 잡지 《서울》 4월 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서울’이여 ‘서울’이여, 네 부디 영국의 런던처럼 되여라. 너 ‘서울’로 말미암아 조선을 영국처럼 되게 하여라. [중략] 잘 꾸미고 잘 간수하여라. 번쩍하니 새롭게 하여라. …… ” (김진송,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51쪽에서 재인용)

한 세기가 흐른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국 런던을 모방하려 한다. 이번엔 옛것에 대한 동경이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불도저 개발주의’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고 그 역사성을 활용하자는 움직임이다. 템스강변 화력 발전소의 구조를 변경해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테이트 모던’이 모범 사례다. 한때 정수장(선유도 생태 공원)·담배 공장(청주 첨단 문화 산업 단지)·인쇄 공장(서울 금천 예술 공장)이었던 공간들이 속속 문화의 옷을 입고 거듭나고 있다. 이른바 ‘도시 재생’, ‘근대 유산의 재활용’이다. ……

빈티지¹·레트로²·인더스트리얼³ 인테리어 등 이런 공간을 수식하는 말은 많다. 단지 낡았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폐공장·창고는 도심 건물에선 드물게 넓고 높은 공간과 층고를 자랑한다.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하는 의외성도 유행이나 변화에 민감한 이들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20~30년 길게는 100년을 넘보는 역사성이 공간에 ‘이야기’를 덧입힌다. 합정동에 있던 폐공장을 개조해 만든 커피숍의 단골인 배 모 씨는 “오래된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게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콘크리트 도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연’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

결국 오래된 것 자체가 아니라 ‘오래됨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문제이다. …… “이 공간이 힘이 있는 건 내면에 깃든 역사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게들이 오래될수록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¹빈티지: 오래되어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패션이나 장식품을 이룸. ²레트로: 회상, 회고, 추억이라는 뜻으로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패션 스타일을 말함. ³인더스트리얼: 기능적이고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스타일을 뜻함.

[다]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光化].’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 근정전 - 사정전 - 강녕전 - 교태전이 남

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광화문을 빼앗아 버려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원래 남산에는 단군을 비롯 한 여러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수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 몸으로 받아 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고 있는 셈입니다. ……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 그보다 며칠 앞서 「혈려 짓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

혈린다, 혈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오백 년 동안 풍우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설위도 할 뿐이다. …… 풍우 오백 년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 일로⁴의 사절⁵도 지나고 원청⁶의 국빈⁷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아! …… 오오, 가엾어라!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느냐. (후략) ……

그리고 2006년에는 광화문을 제자리에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에 비로소 복원된 광화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⁸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광화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격랑⁹의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수난을 당하며 원래의 목조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지요. ⁴일로(日露): 일본과 러시아. ⁵사절(使節):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⁶원청(元淸): 원나라와 청나라. ⁷국빈(國賓): 나라에서 정식으로 초대한 외국 손님. ⁸법궁(法宮): 임금이 사는 궁궐. ⁹격랑(激浪): 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라]

국어사전에서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사의 핵심 개념은 인류·변화·기록이다. 인류의 변화는 수없이 많은 과거의 사실로 존재하지만, 역사로 기록되는 사실은 그중의 일부이다. 역사적 사실은 그 시대의 집단 기억이나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선택된다. ……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당대사라고 부른다. …… 과거의 역사가들은 언제나 당대사를 썼다.

박은식은 일제 강점기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나라를 빼앗기는 아픈 과정을 『한국통사(韓國痛史)』에,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투쟁을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기록하였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이것이 ‘통사’를 짓는 까닭이다.

박은식은 역사를 주체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통사’를 쓸 때의 그는 혁신적인 유학자였지만, ‘혈사’를 쓸 때는 민주주의를 공부한 민족주의자였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는 과정도 배우게 된다.

[문제 1] 제시문(가)와 (나)에 나타난 ‘시간’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고 비교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 예시 답안

제시문(가)는 시간은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창출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을 노동의 기준으로 환산해 사용하므로, 시간은 곧 돈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생산과 유통, 소비 모두 빠른 속도를 지향한다. 같은 시간이라도 빠른 처리나 많은 결과물을 얻는 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사물의 생존 기간보다 빠른 소비를 감각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반면 (나)는 시간이 축적됨으로써 가치가 창출된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물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역사성과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것이므로, 보존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한다. 오래된 건물이나 폐공장에 대한 도시 재생은 그 축적된 시간의 가치를 활용한 예이다.

종합하면, 시간에 대하여 (가)는 사용해서 가치를 얻고 (나)는 축적해서 가치를 얻는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가)의 시간은 속도가 빠르고 소비 기간이 짧을수록 가치가 커진다면 (나)의 시간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커진다. (479자)

■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항목별)	문항 소계
문항 1	이해력 1	60	250
	이해력 2	60	
	분석력	50	
	표현력	40	
	정서법	40	
	분량	-70 ~ 0	

※ 총점 700점(문항 1: 250점, 문항 2: 450점)

문항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항 1)을 참고하십시오.

[문제 2] 과거의 사실이 역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문(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 예시 답안

과거의 사실이 모두 역사는 아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만 역사라 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사실이 인류 사회의 변천과 관련되어야 한다. (라)에 의하면 ‘역사’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말한다. (나)에서 오래된 건물에 인간의 감성과 이야기를 새롭게 담아낸 도시 재생은 인류 사회의 변천을 담아내어 공간의 역사가 된다. 또 (다)의 광화문은 조선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했으나, 일제 강점기에는 철거되는 수난을 겪었고 2010년에 와서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복원되었다. 광화문이 겪어 온 인류 사회의 흥망 과정이 역사가 된다.

둘째, 역사는 기록이나 유물, 유적 등을 통해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 과거의 사실도 후대에 전해지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다. (라)의 박은식이 쓴 『한국통사』나 (다)의 「헐려 짓는 광화문」과 같은 기록, (다)의 광화문과 같은 유적이 과거의 사실을 후대에 전하는 역사 기록물이다.

셋째, 역사는 과거의 사실 가운데 역사가나 집단 기억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라)에서 역사가 박은식은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과 민족정신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또 (다)의 동아일보 기자는 ‘고별사’에서, 충신과 역적, 사신과 국빈이 드나들던 조선 역사의 상징인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헐리는 수난을 표현했다. 이는 조선의 집단 기억에 의해 선택된 역사이자 기록이다.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역사가나 집단의 관점과 시대적 해석이 수반된다. (다)의 ‘고별사’에 민족문화의 훼손에 대한 울분을 표현한 것이, (라)의 박은식이 유학자의 관점으로 ‘통사’를, 민족주의자의 관점으로 ‘헐사’를 서술한 것이 그 예다. 역사는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을 통해 현재와 소통하게 된다. (883자)

■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항목별)	문항 소계
문항 2	이해력 및 분석력 1	120	450
	이해력 및 분석력 2	80	
	이해력 및 분석력 3	120	
	표현력	5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60 ~ 0	

※ 총점 700점(문항 1: 250점, 문항 2: 450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가]

① 윤리적 힘이 쇠퇴하고 물질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대다수 사람이 윤리 없이 혹은 최소한의 윤리로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면서 이상은 현실에서 분리되었고, 우리는 경험적 지식만을 신뢰하며 이상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이상을 포함한 신념만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이 상실되면 현실의 사건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사라지고, 이상에 의해 조절되던 욕망과 감정이 우리를 좌우한다. 현대인은 스스로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의 사건이 일으키는 감정에 지배되며 충동적이다. 분별없이 사건에 반응하고, 계획도 토대도 없이 자신의 미래가 파괴되도록 내버려 둔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을 결정짓는 관건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서 있을 토대는 윤리적 이상 속에서 마련된다. 인간과 사회는 윤리적 이상을 통해 현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현실의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참다운 현실 감각이다. - 슈바이처, 『문화의 몰락과 재건』 -

② 현대인은 갈수록 생산을 위한 노동보다는 욕구와 안락의 지속적인 창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욕구와 안락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모든 잠재력과 소비 능력을 동원하려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잊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불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따라서 그는 계속 활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에 만족하고, 반(反)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현대인의 요리, 문화, 과학, 종교, 성 등에 관한 호기심은 재생력을 가진다. 소비 인간인 현대인은 어떤 향유든지 그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므로 모든 것을 시도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정한 욕망, 취미, 성향이 아니라, 이러한 막연한 강박관념에 의해 움직이는 호기심과 오락의 도덕성이다. 현대인은 즐기는 것,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하게 하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개발해야만 한다. - 보드리야르(Baudrillard, J.), 『소비의 사회』 -

[나]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난다.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다섯 배나 더 많다고 한다. (중략)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점점 내려가는 옷 가격이다. (중략) 의류 산업은 제품을 만드는 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의류 업체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략)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 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 업체도 함박웃음을 짓는다. (중략)

그린피스(Green Peace)²의 2016년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약 800억 점이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남짓이니 한 사람당 10점 이상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³ 매립된다. (중략)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

1. 승승장구(乘勝長驅)하고: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치고. 2. 그린피스(Green Peace): 핵무기 반대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국제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3. 소각(燒却)되거나: 불에 타 없어지게 되거나.

[다]

어느 날 변 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오 년 만에 백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यो.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 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백 금이 열 개가 되어서 열 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명한 가지 물건이 밀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홉 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나 만 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으니, 수레에 있는 것은 수레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촌충한 그물로 모두 훑어 내는 것처럼 싹쓸이할 수 있지요. 물에서 생산되는 만 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만 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 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 버리게 되지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라]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중략)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략)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 제시문(나)에 나타난 현대 사회 소비자의 옷 소비 문화를 제시문(가) ①과 ②의 관점을 각각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설명하시오(25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 예시 답안

제시문 (나)에 의하면 현대 사회 소비자는 옷을 구매할 때 최신 유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행을 접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가)②에 의하면 이러한 옷 소비 문화는 욕구와 안락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호기심이 반영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흐름에서 도태되어 반사회적 존재가 되거나 향유의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심리가 자신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강박적인 소비 행위와 맹목적인 유행 추구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따르다 보면 실제 필요보다 과다한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잉 소비는 (가)①에서 말하는 욕망과 감정에 좌우된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소비이다. 그 결과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일으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며 과잉 소비를 하기보다는 윤리적 이상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489자)

■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문항 1번	이해력	60	250	70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1	5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2	50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80		
문항 2번	이해력	80	45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1	8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2	8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3	80		
	표현력	5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0 ~ -60		

문항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항 1)을 참고하시오.

2. 제시문(라)에서 밑줄 친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제시문(가), (나), (다)를 모두 활용하여 옹호하시오(45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 예시 답안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말은 인간이 타인보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고, 그 이기심을 경쟁을 통해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모두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본주의는 이기심에 기반한 자유 경쟁을 원리로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해 왔다.

(가)②에 의하면, 현대 사회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나 쾌락을 위해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소비 행위를 한다. (나)의 옷 소비자 역시 끊임없이 유행을 따르며 자신의 욕구를 향유한다. 의류 생산자는 노동 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소비자나 생산자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이기심에 기인한 것으로 경쟁을 통해 경제적 부를 늘리고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다. (다)의 허생이 사재기를 통해 많은 부를 얻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기심은 쉽게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 허생 자신도 사재기가 백성과 나라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이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은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공정한 자유 경쟁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심이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유 경쟁도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 보듯 유행하는 옷을싼 가격에 경쟁적으로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 과잉 생산, 과잉 소비 등이 발생하고 결국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류는 물질적 발전과 더불어 (가)①에서 말한 윤리적 이상을 회복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기심과 자유 경쟁이 이끌어 온 전반적인 사회 발전을 고려할 때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말을 옹호할 수 있다. (890자)

■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문항 1번	이해력	60	250	70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1	5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2	50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80		
문항 2번	이해력	80	45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1	8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2	8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3	80		
	표현력	5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0 ~ -60		

2024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가]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골콘다」를 통해 데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 보자.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 버렸다.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이 있다.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 버린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이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데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개블릭은 사물을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 놓는 고립, 불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우연한 만남, 동음이의어적 이중 이미지, 역설, 시공에 관한 경험을 왜곡한 이중 시점을 마그리트²가 구사한 대표적인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꼽는다. (중략)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이나 서커스에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공연 등 각종 융합 상품에서 우리는 이런 데페이즈망적인 결합과 합성의 산업적 성취를 본다. 그런 점에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데페이즈망은 우리의 일상에서 더는 기이하고 낯설기만 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1. 전치(轉置): 판 곳으로 옮겨 놓음. 2. 르네 마그리트(1898~1967):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 나란히 두거나 크기를 왜곡하고 논리를 뒤집어 기괴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나이 80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 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 생의 순간적 단회성은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버둥거렸던가.]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더 많이 실수하리.]을 제시한다.

재탄생의 상상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그리고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기억과 상상의 접합이다.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한다. 인간이 완벽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유한성의 인정이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 상상,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

기억과 사유, 상상과 표현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독특한 능력들의 목록을 대표한다. 인간이 천사를 향해 자랑할 것도 결국은 그 네 가지 능력으로 집약된다.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존재이다. 그 네 가지 능력의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기억은 수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고 사유는 불안하다. 상상은 기억과 사유의 한계를 확장하지만 유한한 경험의 울타리를 아주 벗어나지는 못한다. 표현의 형식과 내용도 시간성에 종속된다. 그러나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인간적 시도들은 그것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만이 가지는 순간적 아름다움의 광채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중략)
기억이 완벽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며 사유가 완전할 수 있다면 아무도 사유의 엄밀성을 이상화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상상은 위대해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전 때문에 표현은 아름다워진다.

[다]

전체줄거리: ‘나’와 연인 관계인 그는 나무뿌리를 재료로 작품을 만든다. (중략)

포도나무 뿌리를 실은 그의 왜건³을 타고 영동을 벗어나, 한밤의 경부 고속 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그에게 미처 못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고모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그때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왜건 뒷자리에 실린 포도나무 뿌리가 나는 그 어떤 뿌리보다 더 고모할머니의 손 같았다. 일 년여를 한방에서 지내는 동안 밤마다 이불 속을 더듬어 오던, 잠들려 하는 내 손을 슬그머니 움켜쥐던 고모할머니의 손이 시공을 초월해 그의 왜건 뒷자리에 실려 있는 것 같았다. 밤마다 내 손을 움켜쥐던 그녀의 손은 쪼그라들어, 겨우 아홉 살이던 내 손보다 작아 보였다. (중략)

“고모할머니 이름이 남귀덕이었어.”

한 번도 불러 본 적 없는 이름을, 부를 일 없을 것 같던 이름을 나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중략)

영동에서 구해 온 포도나무 뿌리, 그 뿌리를 나는 며칠 전 다시 보았다. 경북궁 근처 백 년도 더 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서였다. 정희 선배가 찾집 겸 갤러리를 내면서 대학교 때부터 눈여겨본 후배 몇 명에게 전시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부엌을 개조해 만든 전시실, 공중 곡예를 하듯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 뿌리가 영동에서 구해 온 뿌리라는 것을, 나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말리고, 방부제 처리를 하고, 접착제를 바르고, 촛농을 입히는 동안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평 남짓한 전시실 입구 옆 명조체로 ‘남귀덕’이라고 적힌 작품명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선뜻 전시실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포도나무 뿌리가 드리우는 흰색으로 넘쳐나는 전시실 천장과 벽과 바닥에 포도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기가 감도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면 나는 깨달았다. (중략)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흙이었다는 걸. 태어나고 자란 자리에서 파헤쳐져 내팽개쳐진 뿌리와도 같은 자신의 존재…… 잎 한 장, 꽃 한 송이, 열매 한 알 맺지 못하고 철사처럼 메말라 가던 자신의 존재를 받아 줄 흙이었다고…… 뿌리 뿔뿔히 떠돌던 그녀의 존재를 그나마 내치지 않고 품어 줄 한 줌의 흙. (중략)

아버지와 어머니, 그 어느 쪽도 뚜렷하게 닮지 않은 모호한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서른아홉 살이 되어서야 깨닫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뜻밖에도 고모할머니인 그녀를 닮아 있었다. 무표정한 내 얼굴 위로 그녀의 얼굴이 습자지처럼 겹쳐 떠올랐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고모할머니인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내 몸속에도 흐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중략)

거울 아래 어지럽게 흩어진 머리카락을 주우면서 나는 의문했다. 그녀도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지…… 장조카의 딸인 내가 고모할머니인 자신을 닮았다고. 자신을 꼭 닮은 나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날을 떠올렸던 것은 아닌지. (중략) “죽는 순간에 고모할머니가 손에 꼭 그러잡고 있던 게 뭐였는지 알아? 가제 손수건도, 보청기도 아니었어. 내 손…… 내 손이었어.

3. 왜건: 승용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의 하나. 세단의 지붕을 뒤쪽까지 늘려 뒷좌석 바로 뒤에 화물칸을 설치한 승용차.

1. 제시문(가)는 그림 「골콘다」를 예시로, 제시문(나)는 시 <순간>을 예시로 활용하여 제시문(가)와 (나)를 각각 요약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 예시 답안

제시문(가)는 상상을 통해 비현실적 장면을 연출하여 기이하고 낯선 느낌을 주는 데페이즈망을 설명한다. 「골콘다」는 검은 옷의 남자들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데페이즈망의 예이다. 중력을 벗어난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기계적 배치는 사람이 비처럼 내리는 느낌을 주어 낯설다. 데페이즈망은 고립, 변형, 합성 등을 통해 추리와 상상을 유도함으로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 낸다.

제시문(나)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이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라 설명한다. 시 <순간>을 예로 들면, 작가가 인생이 짧다는 기억을 토대로 완벽하려고 애썼던 삶에 대해 사유하고, 다음 생이 있다면 완벽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실수도 용납하겠다는 상상을 표현한 것이다. 인간은 기억이 불완전하고, 사유는 불안하며, 상상은 경험에 국한되고, 표현은 시간성에 종속되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낸다는 점에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488자)

■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및 분석력 1	40	250	700
	이해력 및 분석력 2	40		
	이해력 및 분석력 3	40		
	이해력 및 분석력 4	40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80		
2번 대문항	이해력 및 분석력 1	80	450	
	이해력 및 추론능력 1	80		
	이해력 및 분석력 2	80		
	이해력 및 추론능력 2	80		
	표현력	5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0 ~ -60		

문항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항 1)을 참고하시오.

2. 제시문(다)의 등장인물 ‘그’의 창작 활동과 제시문(다)를 지은 저자의 창작 활동을 제시문(가)와 (나)를 활용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 예시 답안

제시문(다)의 등장인물 ‘그’는 뿌리를 이용한 작품을 허공에 걸고 ‘남귀덕’이라는 위안부 할머니의 이름을 붙인다. 그의 작품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요소와 미술을 결합한 점, 땅에 있어야 하는 뿌리를 허공에 매달아 공간적 왜곡을 시도한 점, 뿌리 뽑혀 떠돌던 위안부의 삶을 파헤쳐지고 버려진 뿌리에 비유한 점 등에서 (가)에서 말하는 데페이즈망적 창작이다. 또 (나)에 의하면, ‘그’의 창작 활동은 위안부의 삶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그녀들도 나무가 흙에 뿌리 내리듯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이라는 사유를 거쳐, 불안정했던 위안부의 삶을 뽑혀버린 뿌리와 연결하는 상상을 조형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위안부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다)의 저자는 ‘그’의 창작 활동을 소설에 담음으로써 역사와 미술, 문학을 결합하였다. 또한 뿌리와 고모할머니의 쪼그라든 손을 연결한 점, 나무의 뿌리에서 동음이의어인 가족의 뿌리를 연상하도록 유도한 점 등에서 (가)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했다. (나)에 따르면, 저자의 창작 활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연에 대해 관심과 애착이 있고, 혈연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관심과 애착이 더욱 간절할 수 있다는 기억과 사유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뿌리 예술을 하는 ‘그’, ‘나’, 고모할머니를 등장인물로 설정하고, 고모할머니가 뿌리를 닮은 손으로 ‘나’의 손을 잡는 장면, ‘나’가 작품 ‘남귀덕’을 보고 고모할머니의 삶을 연상하는 장면, ‘나’가 자신이 고모할머니와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 등을 통해 혈연에 대한 애착을 담아내는 소설적 상상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자는 이 창작 활동을 통해 잊고 살기 쉬운 가족과 혈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90자)

■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및 분석력 1	40	250	700
	이해력 및 분석력 2	40		
	이해력 및 분석력 3	40		
	이해력 및 분석력 4	40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80		
2번 대문항	이해력 및 분석력 1	80	450	
	이해력 및 추론능력 1	80		
	이해력 및 분석력 2	80		
	이해력 및 추론능력 2	80		
	표현력	5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0 ~ -60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